올바른 길 등진 삼매의 힘은 오히려 경계해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㉙ 삼매진화에 고전하는 손오공



그림 · 최주현

속세의 정을 어이 끊을까. 그 질긴 미련은 어디로 보낼까. 저팔계 애틋한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인도를 향한 머나먼 길 떠나네. 길목에서 오소선서(烏巢禪師) 만나 반야심경을 받고, 앞일도 점지 받고 허위허위 도달한 곳, 황풍령이라네.

이름도 수상하다, 누런 바람 부는 고개라? 손오공 바람 꼬리를 붙잡아 냄새를 맡아보니 비린내가 풍기는 것이 요괴 소굴이 분명하다.

아니나 다를까. 황풍동이란 요괴 소굴이 있어 현장법사가 납치되는 고난을 겪는다. 요괴 두목 재주가 비상하여 세상을 뒤엎는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름하여 삼매신풍(三昧神風)이라. 태상노군의 화로 속에서도 버틴 손오공도 눈을 다쳐 못 뜰 지경이라 요괴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영길 보살님 모셔서 요괴를 잡아낸다.

이런 정도의 재난이야 앞으로 수도 없이 겪을 일~ 다시 길을 떠나 도착한 곳~폭이 팔백 리나 되는 강. 거위 털도 뜨지 못하고 갈대꽃도 가라앉는 유사하(流沙河)라네. 이 강을 어찌 건널까 근심스런 일행 앞에 갑자기 물결이 산처럼 치솟고 험상궂은 요괴 한 마리 등장한다.

목에 아홉 개의 해골 걸치고 무시무시한 보물 지팡이 휘두르며 달려든다. 저팔계가 맞상대하고 손오공이 슬쩍 틈타 거드니 달려들었던 기세가 부끄럽구나. 물 속 소굴로 달아나버린다. 모든 게 가라앉는 이 강도 문제지만 우선은 이 요괴 퇴치가 급한 일이구나. 손오공과 저팔계 힘을 합치고 온갖 꾀를 내어보지만 이 요괴 잡히지 않네. 급하면 물속 소굴로 달아나니 손오공 기막힌 재주도 물속에선 힘을 제대로 못 쓴다.

급하면 결국 보살님 찾는 게 묘수. 손오공 근두운 불러 타고 관세음보살님 찾아뵙는다. 관세음보살님 야단을 치신다. 그 요괴는 하늘의 권렴대장이 유배된 존재라 내가 이미 너희들 돕도록 안배해 두었는데 서천에 경 가지러 가는 일행이란 말을 왜 아니하였느냐!

제자 혜안을 손오공과 함께 보내어 바로 요괴를 항복받아 일행에 합류시키니 이름하여 사오정! 말귀 어두운 사오정? 이제야 그 이름도 유명한 손오공 삼총사, 그 팀을 온전히 꾸렸구나!

용마가 좀 섭섭하다 투덜거린다. 나도 끼워서 사총사 하자구? 아무튼 이젠 무서울 것 없구나. 앞길에 나타날 요괴들 납작 엎드리거라!

저팔계, 앞으로 속깨나 썩일 저팔계, 그렇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쓰는 저팔계…. 이제 일행으로 합류했네요. 그런데 그 저팔계가 떠나는 대목에 참 재미있는 묘사들이 있어요. 저팔계가 하는 말을 들어 볼까요?

"장인어른, 제 마누라 잘 돌봐주세요. 만약 우리가 불경 구하지 못하면 바로 환속해서 예전처럼 사위노릇 해 드릴게요."

그래서 손오공이 헛소리 말라고 꾸짖자 저팔계가 항변을 하지요.

"형님, 헛소리가 아니요. 어쩌다가 일이 잘못되어 중도 못 되고 마누라도 없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쩌란 말이요!"

바로 우리 일반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네요. 구도의 마음이야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는 그 망설임! 거기다 구도의 길로 나서도 꼭 이루어지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절대 깨달음의 길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정말 큰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리심을 낸다'는 것이겠지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낸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무조건 그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해서 내 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삼쾌선생은 여기서 좀 다른 각도

고도의 집중이자 힘인 '삼매'
"이를 악용하는 이들 있어"
'계' 바탕한 정이 혜를 만들어

로 생각을 돌려 봅니다. 우선은 보리심을 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길과 우리의 삶을 딱 갈라서 두기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나날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부처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쪽을 딱 끊고 저쪽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몇 배로 더해지지요. 아예 갈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을 그렇게 딱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렇게 보는 것이야말로 불교적인 생각이 아니지 않을까요? 생사(生死)가 바로 열반이라는 말도 있고, 또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우리의 삶과 깨달음의 길을 하나로 보려고 애쓰면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둘로 딱 갈라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로 하려고 하지 않지만 둘로 보지도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유마경에서 말한 '둘이 아닌 진리의 문'(不二法門)이 아닐까요?

이크! 좀 너무 나갔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요. 너무 따지진 마세요. 아무튼 저팔계의 그 미련을 뒤에 남기고 우리 현장법사 일행은 앞으로 앞으로 갑니다. 가는 길목에서 오소선사란 분을 만나네요. 까마귀 둥지처럼 높은 나무 위에 둥우리를 만들고 사시는 스님이지요. 흠~ 나칠계님. 고개를 외로 꼬시는 게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군요. 왜 편안한 땅 두고 위태롭게 까마귀둥지 같은 곳에 사느냐구요? 허긴 이상하기는 이상하군요. 그렇지만 나칠계님, 님께서 편안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편안한 땅인가요?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지 생각해 보셨어요? 무어 하나 확실한 것 있나요?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무상함을 딛고 계시면서도 편안하다 착각하시는 것 아니예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땅 위에 계시지 않나요? 그에 비하면 오소선사는 오히려 편안하실 지도 모르지요. 깨달음의 편안한 땅에 머무르고 계신 것 같으니, 나칠계님보다는 훨씬 편안하실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멍한 표정이군요. 하하, 제가 수준을 너무 높였나 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오소선사께서는 원숭이와 돼지가 앞길을 헤치고 가니 물속에서 요괴가 나타나리라는 예언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손오공 속을 뒤집어 놓지요. 물 속 요괴란 것은 아마도 사오정을 가리키는 말일 것 같지만, 손오공이 그거까지 알 수야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떠난 길, 황풍령(黃風嶺)이란 험준한 고개에 도달하지요. 그리고 그 산 속에 황풍동이란 요괴 소굴이 있고, 그 속에 황풍대왕이란 요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괴 밑에 호랑이 선봉대장이라는 부하가 있는데, 이 호랑이 선봉대장에게 삼장법사가 납치되는 재난을 겪습니다. 실력으로야 호랑이 요괴에게 당할 리가 없지만, 그냥 도망치다가 둔갑술 써서 자기 거짓 형상을 만들어 놓고 슬쩍 뒤돌아와 현장법사를 납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굴로 쳐들어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두목 요괴가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이름이 삼매신풍(三昧神風)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삼매에서 일어나는 신묘한 바람이지요. 또 삼매란 정신의 올곧은 집중을 말하는 것이니, 정신의 집중을 통해 얻어진 신통한 바람이란 말이 되겠네요. 이 바람이 어찌나 센지 손오공도 눈을 못 뜨고, 결국 눈을 다치게 됩니다. 손오공 눈이 어떤 눈입니까? 전에 하늘 세상 어지럽힐 때 태상노군의 단약 만드는 화로에 갇혀서 그 매운 연기도 버텨낸 눈이 아닙니까? 삼매의 신통한 바람은 그 눈까지도 다치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삼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이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의 삼학 계, 정, 혜 가운데 하나인 정이 바로 삼매이고, 그 때는 올바른 삼매를 말하는 것이지만, 고도의 정신 집중은 정사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사를 가리지 않고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영화나 소설 속에서, 악당 가운데도 초능력을 쓰는 자들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도 삼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걷느냐 아니냐 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삼매의 힘을 얻게 되면 그야말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재앙인 것이지요. 앞으로 한참 더 나가서 등장하는 요괴 가운데 홍해아라는 요괴가 있습니다. 이 요괴도 삼매진화라는, 삼매에서 이룩된 불기운을 씁니다. 그리고 그 요괴에게 당해 손오공이 눈이 머는 사태가 일어나지요. 무시무시한 삼매의 힘! 거기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등진 삼매의 힘은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해 둡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삿된 길로 가면서 삼매의 힘을 얻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문제는 이 삼매의 힘을 자신이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표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혹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과연 올곧은 길을 가고 있는가를! 그런 힘을 통해 혹세무민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불교 문중에도 그런 분들 종종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바입니다. 전생을 본다는 둥, 미래를 예지한다는 둥, 재앙을 예견하고 막아줄 수 있다는 둥…. 대개 사기꾼들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전생을 봤다 하면, 바로 달려들어 물어 보세요. 나도 봤는데 당신이 본 것과 다르다! 어떤 게 맞는 것이냐고요.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이상한 권위를 내세우면서, 도력입네 법력입네 공갈치는 무리들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짓들은 삿된 짓입니다. 부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신 삿된 짓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이 올바른 이들일 수 없겠지요?

애고, 속세고 불문이고 어수선한 일들이 많다보니, 삼쾌선생 노파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주제 넘다고 욕하지 마시구요. 나는 그럴 일 없다고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무튼 삼매의 신통한 바람 때문에 물러난 손오공이 우회전법을 쓰네요. 벌레로 변신하여 요괴 동굴을 염탐하여 요괴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를 알아내지요. "영길보살(靈吉菩薩)만이 날 물리칠 수 있다"는 요괴의 말! 나와서 영길보살님의 거처를 수소문해서 알아냅니다. 태백금성(太白金星)이라는 신선이 슬쩍 귀띔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영길보살 모셔오니, 상황 끝! 원래 영길보살님은 이 요괴의 행패를 막는 전담자였더라네요. 삼매신풍을 막아내는 비장의 무기를 지니고 계시니 정말 요괴로선 어쩔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약점은 꿈속에서라도 함부로 발설하는 법이 아니라구요. 하하. 이렇게 황풍요괴 물리치고, 다시 앞으로! 이제 드디어 삼총사의 막내 사오정 만나러 가야 하겠지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과천토지 3.3㎡ 25~35만원 특별 분양

제2의 강남,과천 선바위역 800m 거리의 도시지역 토지



(주)경기토지개발에서는 과천에서 명품주거 단지인 안골에 있는 제1종 주거지역에 접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를 3.3㎡당 35~25만원에 분양한다.

"과천을 강남벨트로 만들겠다"는 과천시장의 구상에 따라 지하철 신분당선 또는 양재C역 또는3호선 양재역을 연결추진 중이며 과천동 글로벌비즈니스타운(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추진(51만평) 등 과천의 그린벨트가 속속히 풀려 개발되고 있다.

이번에 분양중인 토지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지는 서초구 사당동 과 양재동을 접하고있는 토지라 투자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싸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시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토부의 계획이 따라 현재 주민 실태조사 중으로 주민생활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계획이어서 강남생활권인 과천의 입지성을 감안, 과천일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답사는 신청자에 한하여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 분양 문의 : 02-2058-0132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신행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5분거리) Tel: 02)953-7181